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1권 제1호(통권 제81호, 2010 · 봄호)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에의 영향 비교 : 일반이론의 검증

이 성 식*

국 | 문 | 요 | 약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이론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검증되어 상당한 지지를 받아왔다. 하지만 그 이론이 사이버 온라인 비행에 적용된 바는 적다. 이 연구는 일반이론을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에 적용하고 비교하는 것에 주목한다. 이 연구는 일반이론에서 강조하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외에 비행기회요인들의 영향력을 다룰 것이며, 아울러 통합론적 접근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행기회요인들로 비행으로 얻는 이득,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손실, 처벌인지, 그리고 부모감독을 다룬다. 서울시 715명의 남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낮은 자기통제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행에 모두 강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하지만 낮은 자기통제력은 상대적으로 온라인에서, 그리고 비행기회요인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더 크게 작용했다. 본 연구의 예측과 달리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는 오프라인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부모감독과의 상호작용효과만이 발견될 뿐 전체적으로 미약했다.

❖ 주제어 : 일반이론, 낮은 자기통제력, 비행기회요인,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행.

Ⅰ. 서 론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이론은 비행연구에 있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이다. 그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설명력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순간만족의 충동과 자제력의 부족이 비행이나 범죄의 주된 원인이 된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Pratt and Cullen, 2000). 이 이론이 일반이론인 이유는 기존의 두 범죄학 학파인 고전주의와 실증주의 학파를 모두 수

*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부교수

용하여 통합하려 했다는 점에 있고, 그 이론에서 강조하는 낮은 자기통제력은 모든 유형의 범죄, 즉 사소한 문제행동에서부터 재산, 폭력범죄, 그리고 약물범죄에 이르는 모든 범죄를 설명하는 원인이라는 점, 그리고 그것은 어느 국가나 문화권에서도 적용가능하고, 또 모든 연령층, 남녀 모두의 범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일반이론이 사소한 문제행동(Arneklev et al., 1993; Gibbs and Giever, 1995), 청소년비행(Wood et al., 1993), 그리고 강력범죄를 포함한 성인범죄(Grasmick et al. , 1993; Evans et al., 1997; Longshore and Turner, 1998)에 이르기까지 잘 적용되어 왔고, 그동안 미국이외에(Pratt and Cullen, 2000), 유럽(Vazsonyi et al., 2001), 일본(Vazsonyi et al., 2004), 그리고 국내의 연구(민수홍, 2005, 2006)에서도 지지되어 왔다.

이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이론을 검증하려고 한다. 즉 일반이론에서 강조하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과연 청소년비행의 중요한 설명요인이 되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이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일반이론을 기존 연구의 중심이 되었던 오프라인 비행에 적용하는 것이외에 최근 들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사이버 온라인 비행에 적용해 보려는 점에 있다. 그들의 이론이 일반이론이라면 그것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 모두에 잘 적용될 것인데, 기존 국내연구에서 이성식(2005)은 일반이론의 논의를 사이버비행에 적용하여 그 논의가 지지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연구가 사이버 온라인 비행에만 적용했다고 한다면, 이 연구는 일반이론의 논의를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행 모두에 적용하고 그 논의의 타당성을 서로 비교하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외에 일반이론에서 또 다른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비행기회의 요인들이 과연 낮은 자기통제력과 함께 청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보려는 점에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그들의 저서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이외에 비행기회가 비행의 필요충분조건으로서 또 다른 설명요인이 된다고 주장했음에도,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에만 주목해 왔다. 그러나 1990년도 중반까지의 연구들과는 달리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외국 연구들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

기회의 통합작용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 왔는데(Longshore, 1998; Smith, 2004; Hay and Forrest, 2008), 국내에서는 그러한 연구가 부족한 점에서 이 연구는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일반이론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행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비교하려고 하며, 아울러 낮은 자기통제력이외에도 비행기회의 요인들의 영향력을 함께 다룸으로써 과연 낮은 자기통제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행에서 모두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낮은 자기통제력은 어떤 비행기회의 요인과 함께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낮은 자기통제력의 작용에 있어 비행기회의 여건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서로 상이한지를 서울시 재학중인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 목적이 된다.

Ⅱ. 이론적 논의

1.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이론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일반이론은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론 중 하나이다. 일반이론은 대부분의 비행이나 범죄가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즉흥적이면서도 충동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했고, 따라서 범죄자와 정상인을 구분하는 특성도 순간만족과 충동성을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내적 성향 차이에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통제력이라고 했다.

일반이론은 고전주의 학파와 실증주의 학파의 주장을 통합하려고 했다. 고전주의 학파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상인과 범죄자는 차이가 없다고 보았고, 범죄자의 특성보다는 범죄행위의 특성에 주목했는데, 범죄는 즉각적으로 순간적이며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범죄자의 특성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범죄가 발생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실증주의 학파는 정상인과 범죄자와는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고 정상인과 구별되는 범죄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였다.

일반이론은 두 학파를 통합하면서, 범죄는 즉각적이고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보아 고전주의 학파의 입장을 수용했고, 또 정상인과 범죄자는 구분되어 범죄는 범죄자의 안정된 특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아 실증주의 입장을 수용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범죄자의 특성은 즉각적이고도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범죄의 특성에 맞게 순간만족과 쾌락,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로서 자기통제력이라고 본 것이다. 자기통제력은 순간만족과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지, 스릴과 모험을 추구하기보다는 분별력과 조심성이 있는지, 근시안적이기보다는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는지, 쉽게 흥분하는 성격인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비행과 범죄를 더 저지른다고 보았다.

Gottfrefdson과 Hirschi는 그러한 내적 성향이 어릴 때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즉 그것은 어릴 때 부모의 양육방법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부모로부터 감독이 소홀하거나 애정 결핍 속에, 무계획적 생활습관이 방치되고, 잘못된 행동에 제재가 없이 자란 아이들은 내적 통제력이 낮아 어려서부터 문제행동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성향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 지속적이고도 안정된 성향이기에, 청소년기나 성인이 되어서도 우발적이고도 충동적으로 쉽게 비행 또는 범죄에 빠져든다고 보았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자기통제력이라는 내적 성향이 비행의 주된 설명원인이라고 보았고 기존의 사회유대이론이나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에서 강조되었던 사회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력을 부정했다. 즉 자기통제력을 통제할 경우 사회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은 비행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허위관계가 된다고 주장했으며, 사회유대의 약화, 비행친구와의 접촉, 비행은 모두 낮은 자기통제력이라는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되는 결과라고 보았다.

일반이론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이 비행이나 범죄행위의 가능성이 높음이 제시되어 왔다(Grasmick et al., 1993; Wood et al., 1993; Gibbs and Giever, 1995; 민수홍, 2006). 또한 자기통제력은 사회유대, 비행친구 요인들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비행과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Nagin and Paternoster, 1993; Evans et al., 1997). 그러나 이후 연구결과들을 보면 자기통제력이외에 사회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 모두가

비행에 중요한 설명요인이 된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비행이나 범죄가 어릴 때 형성된 성향에 의해서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많은 논란과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Paternoster and Brame, 1997; Baron, 2003; Chapple, 2005), 심지어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사회유대나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만을 갖는다는 연구가 제시되기도 했다(Longshore et al., 2004).

2.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의 통합적 설명

사실 Gottfredson과 Hirschi는 낮은 자기통제력만을 비행이나 범죄의 유일한 원인으로 본 것은 아니었다. 그의 저서를 보면 그가 고전주의 학파와 실증주의 학파를 통합하려고 노력했듯이, 낮은 자기통제력은 비행의 필요조건이고, 비행발생의 또 다른 충분조건으로 비행의 기회가 갖추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1990, p.22-24). 즉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이 아무 때나 언제나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회가 없으면 비행을 저지르지 않고 일정한 비행의 기회가 갖추어져 있을 때 한하여 비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제시했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이렇듯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를 비행의 원인으로 모두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학자들은 대부분 그들의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에만 주목했었다.

사실 개인의 성향만을 비행의 원인으로 고려했다는 것은 완전하지 못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비행이론들을 보면 개인성향이외에도 사회환경요인들을 강조한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따라서 보다 완전하고 종합적인 설명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성향 및 사회환경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가 낮은 자기통제력이외에 비행기회요인을 고려했다는 것은 그러한 통합적 이론의 시도에 관심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가 그의 저서에서 비행기회를 명확히 논의하고 정의하진 않았지만, 비행기회란 비행으로 얻게 되는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이득과 만족, 비행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상황여건, 그리고 비행사실이 발각될 낮은 위험 가능성이라고 본다(Grasmick et al., 1993; Smith, 2004). Gottfredson과 Hirschi는 비행기회를 논의함에 있어 고전주의 학파의 대표적 논의로 일상행위이론의 주장을 수용했다.

일상행위이론(Cohen and Felson, 1979)은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동기화된 비행자, 매력적 대상, 감시의 부재가 그 세 요건이 된다고 했는데, 즉 동기화된 비행자가 매력적인 대상이 존재하고, 또 비행을 저지할 수 있는 감시가 존재하지 않을 때 비행은 쉽게 발생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매력적 대상과 감시의 부재는 비행기회의 대표적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이득과 손실의 요소이며, 즉 이득이 많고 손실이 적은 상황여건이 비행기회가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Gottfredson과 Hirschi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이 이렇듯 이득이 높고 손실이 낮은 기회의 상황에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개인성향과 아울러 비행기회를 동시에 고려한 일반이론을 제시했던 것이다.

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러한 논의를 검증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한 연구들을 보면 초기 연구로 Grasmick과 동료들은(1993)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이 범죄기회가 높다고 인지할 때 범죄를 더 저지른다고 봄으로써 그 논의를 지지하였고, 유사한 논의로 이후 Longshore(1998)가 성인대상의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주관적으로 인지한 기회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일반이론의 논의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이후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들이 평소 부모의 감독이 약할 때 비행이나 범죄를 더 저지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고(LaGrange and Silverman, 1999),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의 노출로서 집밖에 시간을 보내는 정도와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연구도 있는데, Hay와 Forrest의 연구(2008)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감독이 낮거나 혹은 집밖에서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의 비행기회에의 노출이 높은 상황에서 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한편으로 자기통제력은 처벌인지와의 요소와도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는 주장과 그것을 입증하는 연구가 있다. 고전주의 학파에 근거하고 있는 억제이론의 논의에서는 외부 상황으로서 공식처벌의 작용이 범죄여부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보았는데, 그러한 처벌요소가 비행기회의 한 요소이듯이, Wright와 동료들의

연구(2004)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이 처벌의 억제효과가 낮다고 인지할 때 비행이나 범죄를 더 저지르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국내 연구로 이성식(2006a)은 성인들의 약물남용에 관한 연구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을 다루면서 동시에 약물남용기회로서 약물로 얻는 이득, 주위 약물자와의 접촉기회 노출, 약물로 결과될 사회유대손실, 그리고 공식처벌인지도를 함께 다루었는데, 낮은 자기통제력은 이들 약물기회요소들과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는 결과를 제시해 일반이론의 통합적 논의를 어느 정도 지지하였다.

Ⅲ. 연구가설과 방법

1. 연구가설

이 연구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이 얼마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을 잘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동안 일반이론은 오프라인 비행에 많이 적용되어 연구되어 왔지만,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사이버 온라인 비행에 적용된 예는 매우 적다. Gottfredson과 Hirschi의 주장대로라면 그 이론은 어느 유형의 비행에도 적용가능한 일반이론이라는 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행 모두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온라인 비행에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일반이론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비행기회가 용이한 상황에서 잘 작동한다고 보고 있는데, 온라인공간은 비행을 저지르기가 훨씬 쉽고 용이하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육체적으로 큰 노력 없이도 한 번의 클릭만으로 비행을 쉽게 저지를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의 비대면과 익명의 특성으로 비행시 발각 가능성이 낮아 비행기회는 훨씬 용이하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보다 비행기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더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고 볼 수 있다(이성식, 2005, 2006b).

한편 이 연구에서는 Gottfredson과 Hirschi가 제시했듯이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들이 비행기회도 높아야 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통합론적 논의에 따라 낮은 자기통제력의 독립적인 주 영향력이외에 여러 비행기회요인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비행기회요인들의 영향력 및 아울러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는 비행기회의 요인들로 일상행위이론에서와 같이 이득과 손실의 요소와 같은 기회요인들에 주목하기로 하는데, 기존의 논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비행으로 얻는 이득, 비행으로 결과될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손실, 공식처벌에 대한 인지, 그리고 부모의 감독을 포함하여 다룰 것이다. 즉 여기서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이와 같은 비행기회요인들과는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들이 비행으로 얻는 이득을 높게 인지하고,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손실과 공식적 처벌을 낮게 인지하며, 평소 부모의 감독이 낮은 비행기회가 높은 경우에서 비행을 더 저지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2. 측정

본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낮은 자기통제력은 Grasmick과 동료들의 연구(1993)에 따라 충동성, 단순작업성, 위험추구성, 육체성, 이기성, 화기질 등 여섯 가지 특성에 대해 각 두 문항씩 총 열 두개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나는 충동적이다”와 같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alpha=.845).

본 연구에서 다룰 비행기회요인으로는 앞서 제시했듯이 비행으로 얻는 이득, 비행으로 결과될 손실이나 발각될 위험의 부족, 그리고 부모의 감독부족 등에 주목하기로 한다. 이에 우선 비행으로 얻는 이득의 경우는 비행이 얼마나 재미있을지의 심정적 이득을 중심으로 사용하기로 하는데,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행에 대해 각각 비행항목들을 제시하고 “위의 비행들은 재미있을 것 같다”를 각각 한 문항씩 사용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비행으로 결과될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손실에 있어서는 역시 오프라인과 온

라인 비행에 대해 각각 세 문항씩을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비행을 한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안다면 나에게 실망을 할까 망설이게 된다”, “위와 같은 비행을 한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안다면 나를 비난할 것이다”, “위와 같은 비행을 한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안다면 나는 창피할 것이다”를 사용하고, 각각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오프라인 alpha=.955; 온라인 alpha=.953).

공식적 처벌에 대한 인지도를 위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행에 있어서 각각 “위의 행동들을 한다면 발각되어 처벌을 받을 것이다”의 항목을 사용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부모의 감독은 오프라인의 경우는 “부모님은 내가 집밖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로, 온라인의 경우는 청소년들이 주로 집안에서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부모님은 내가 집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를 사용하고, 각각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인으로 오프라인 비행과 온라인 비행은 각각 열 문항씩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오프라인 비행의 경우는 대표적인 비행유형으로 지위비행 및 재산, 폭력, 성비행 및 약물비행을 포함하기 위해 흡연, 음주, 출입불가장소의 출입, 절도, 강도, 폭행, 성희롱, 강간, 성관계, 약물사용 등을 사용하였고, 온라인 비행의 경우는 욕설,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스토킹, 음란사이트 접속, 아이디/주민번호 도용, 해킹/바이러스 유포, 스팸메일 발송, 사기, 저작물침해 등을 사용하였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행은 각각의 열 개의 행동에 대해 경험여부를 묻고 최종적으로 합산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3.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재학중인 남녀 중학생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일곱 개 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에서 1,2,3학년 한 학급씩을 선정하기로 하며, 선정된 학급에서 학급학생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2008년도 7월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718개의 설문을 회수하였는데,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715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1>에서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사회배경적 특성을 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364명으로 50.9%를, 여학생이 336명으로 47.0%를 차지해 성별분포는 남자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2세에서 16세까지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14세가 257명(35.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이 15세가 196명(27.4%), 13세가 191명(26.7%)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계층적 변인과 관련하여 한 달 평균 가족수입을 살펴보면 가족 월수입이 201만원에서 300만원 이하가 164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대가 124명(17.3%), 400만원대가 101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명	%
성		
남성	364	50.9
여성	336	47.0
무응답	15	2.1
연령		
12세	58	8.1
13세	191	26.7
14세	257	35.9
15세	196	27.4
16세	13	1.8
가족수입		
100만이하	32	4.2
101-200만	89	12.8
201-300만	164	23.0
301-400만	124	17.8
401-500만	101	14.6
501-600만	34	4.8

	명	%
601-700만	21	3.4
701-800만	9	1.4
801-900만	9	1.4
901만이상	37	5.3
무응답	96	13.4
총	715	100.0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의 결과는 <표 2>에 제시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요 독립변인으로서 응답자의 낮은 자기통제력은 12-60범위에서 33.332로 제시되어 평균적으로 자기통제력이 낮은 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기회요인들에 대해서는 먼저 비행으로 인한 심정적 이득으로서 재미는 오프라인의 경우는 평균값이 1.828, 온라인의 경우는 2.009로 모두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보다는 온라인에서의 비행이 다소 더 재미있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으로 결과될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손실의 경우는 오프라인에서는 평균값이 3-15범위에서 11.581, 온라인에서는 10.974로, 대체로 손실을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는데, 온라인에서보다는 오프라인에서 그 손실을 더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처벌의 인지도는 오프라인에서는 3.933, 온라인에서는 3.728로, 두 비행 모두에서 발각되거나 처벌될 가능성을 높게 인지했으나 오프라인에서의 처벌 인지도가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에서 오프라인의 집밖에서의 감독은 평균값이 3.317, 집안에서의 감독은 3.412로 부모의 감독수준은 집안에서 다소 더 높았다. 이처럼 비행기회요인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의 감독수준을 제외하고는 오프라인에서보다 온라인의 경우에서 비행기회가 더 높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으로 사용할 비행의 경우 오프라인 비행은 평균적으로 .893 그리고 온라인 비행은 1.406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의 비행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평 균	표준편차	범 위
낮은 자기통제력	33.332	8.907	12-60
재미이득(오프라인)	1.828	1.027	1-5
재미이득(온라인)	2.009	1.163	1-5
주위관계손실(오프라인)	11.581	3.511	3-15
주위관계손실(온라인)	10.974	3.859	3-15
처벌인지(오프라인)	3.933	1.151	1-5
처벌인지(온라인)	3.728	1.211	1-5
부모감독(오프라인)	3.317	1.132	1-5
부모감독(온라인)	3.412	1.140	1-5
비행(오프라인)	.893	1.471	0-10
비행(온라인)	1.406	1.651	0-10

3. 연구모델의 다중회귀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영향력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비행에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비교하는 것에 주목한다. 오프라인 비행을 종속변인으로 했을 때의 결과는 <표 3>에, 온라인의 경우는 <표 4>에 제시된다.

먼저 오프라인 비행의 경우 <표 3>의 첫 번째 모델(1)에서와 같이 사회배경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남자 청소년이 $p<.05$수준에서 비행을 더 많이 저지르며, 또한 가족의 수입이 높은 청소년들이 $p<.05$수준에서 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의 온라인 비행의 경우도 남자 청소년들이 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오프라인 비행의 경우와는 달리 온라인 비행에 있어서 가족의 수입에 따른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나 연령이 많은 청소년이 온라인 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배경변인들에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을 추가한 두 번째 모델(2)의 결과를 살펴보면 <표 3>의 오프라인 비행의 경우나 <표 4>의 온라인 비행 모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이 $p<.001$수준에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오프라인 및 온라인 비행을 더 저지른다는 결과를 제

시했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비교해 보면, 본 연구의 예측대로 오프라인의 경우는 그 설명력이 모델(2)와 모델(1)의 R제곱의 차인 .083인 반면, 온라인의 경우는 .090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예측대로 온라인에서 다소 약간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그 차이는 거의 없었다.

비행기회요인들의 비행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모델(3)의 결과에 제시된다. 먼저 <표 3>의 오프라인 비행의 경우는 비행으로부터의 재미이득이 $p<.001$수준에서 가장 높은 영향력($\beta=.172$)을 가졌고, 그 다음으로 주위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손실이 $p<.001$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beta=-.108$)을 나타냈다. 즉 비행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비행으로 주위 사람과의 손실을 덜 인지할수록 오프라인 비행을 더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처벌인지도와 부모의 감독이 $p<.05$수준에서 각각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그러나 베타값을 비교해 볼 때 비행기회요인들보다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beta=.227$)이 보다 더 큰 것으로 제시되었다.

온라인의 경우는 <표 4> 모델(3)에 제시되듯이 역시 오프라인의 경우와 같이 비행으로 얻는 심정적 재미이득이 $p<.05$수준에서 유의미했다. 그러나 오프라인에서는 중요했던 주위 사람과의 관계 손실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처벌인지도와 부모의 감독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오프라인의 경우와 같이 온라인의 경우도 비행기회요인들보다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더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중요했지만 오프라인과 비교해 볼 때 온라인 비행에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다소 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비행기회요인들의 영향력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온라인 비행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 보다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실제로 비행기회요인에서도 온라인 비행의 경우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나 공식처벌, 부모의 감독과 같은 요인들보다는 내적 심정적 이득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이 비행을 설명함에 있어 필요충분조건으

로 모두 통합되어야 한다는 일반이론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간의 각각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표 4>의 모델(4)에 제시된다. 여기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변인에서 평균값을 차감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는데, 오프라인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부모의 감독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낮은 자기통제력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감독이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더 비행을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낮은 자기통제력과 그 외의 비행기회요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온라인의 경우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상호작용효과는 어떠한 것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질 뿐이며, 서로 통합하여 작용할 것이라는 통합론적 가설은 대체로 지지되지 못하는 것을 제시한다.

〈표 3〉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오프라인 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행(1)		비행(2)		비행(3)		비행(4)	
	b	β	b	β	b	β	b	β
남성	.243*	.080	.306*	.100	.164	.057	.169	.059
연령	−.059	−.038	−.065	−.041	−.106	−.071	−.099	−.066
가족수입	.057*	.081	.070*	.101	.072**	.109	.075**	.112
낮은자기통제력			.050***	.292	.037***	.227	.037***	.230
재미이득					.271***	.172	.254***	.180
주위관계손실					−.049**	−.108	−.048**	−.11
처벌인지					−.122*	−.041	−.114*	−.09
부모감독					−.096*	−.075	−.090	−.070
낮자*재미이득							.006	.033
낮자*주위관계손실							.003	.050
낮자*처벌인지							−.002	−.033
낮자*부모감독							−.010*	−.089
R−square	.015		.098		.141		.152	
F값	3.012*		15.812***		11.592***		8.388***	

* p<.05; ** p<.01; *** p<.001

〈표 4〉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의 온라인 비행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비행(1)		비행(2)		비행(3)		비행(4)	
	b	β	b	β	b	β	b	β
남성	.496***	.149	.540***	.163	.477***	.153	.493***	.158
연령	.052*	.088	.122	.071	.077	.047	.080	.049
가족수입	.025	.033	.040	.052	.051	.041	.051	.041
낮은자기통제력			.057***	.306	.049***	.279	.049***	.281
재미이득					.152*	.113	.146*	.108
주위관계손실					−.023	−.058	−.024	−.060
처벌인지					−.010	−.008	−.012	−.009
부모감독					−.023	−.017	−.021	−.015
낮자*재미이득							−.001	−.000
낮자*주위관계손실							.001	.001
낮자*처벌인지							.005	.036
낮자*부모감독							−.001	−.013
R−square	.032		.122		.142		.144	
F값	6.637***		20.002***		11.580***		7.757***	

* p<.05; ** p<.01; *** p<.001

Ⅴ. 결 론

이 연구는 Gottfredson과 Hirschi의 일반이론을 현실 오프라인 비행 및 사이버 온라인 비행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비교하려는 데에 주목했었다. 이에 일반이론에서의 주요 요인인 낮은 자기통제력이외에 그 이론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비행기회요인들을 함께 다루고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이 함께 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했었다.

서울시 중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결과는 어느 정도 일반이론을 지지했다. 우선 일반이론의 주 독립변인인 낮은 자기통제력은 오프라인 비행에서나 온라인 비행 모두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느 유형에서나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이 작동할 것이라는 일반이론의 논의는 지지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의 예측대로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은 오프라인 비행에서보다는 온라인 비행에서 다소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의 경우 사회환경이나 외적

요인보다는 개인 내적 요인의 작용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비행기회요인들에서 평균값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듯이 일반이론의 논의대로 온라인에서 더 비행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예측대로 비행기회요인들도 일부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했다. 비행으로부터 얻는 심정적 이득은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 모두에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기회요인임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프라인에서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와 처벌인지 및 부모의 감독도 중요한 비행기회요인이었다. 하지만 온라인의 경우는 심정적 이득으로서 재미이외에는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낮은 자기통제력의 영향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더 큰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비행기회요인들은 온라인에서보다는 오프라인에서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외에 통합적으로 작용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그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오프라인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부모의 감독과의 상호작용효과만 유의미했을 뿐 낮은 자기통제력과 그 외의 비행기회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온라인의 경우는 모든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이 각기 독립적으로만 비행에 작용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개인성향요인과 비행기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는 못했지만 개인성향으로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비행기회요인이 모두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개인성향만에 주목하는 일부 이전의 일반이론 검증에서의 논의나 다른 심리학적 논의들이 보완되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오프라인과 비교해 볼 때 온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비행기회요인보다는 개인 내적 요인의 작용이 보다 중요했는데 이는 비행기회와 상관없이 개인성향요인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다룬 기회요인들에 대한 측정의 오류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아울러 온라인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은 다른 기회요인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사이버 온라인비행의 경우 인터넷을 익명으로 사용하는지의 익명사용이라든지 인터넷 사용시간과 같은 새로운 기회요인들의 영향력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비교연구라는 점에서 이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는 보다 발전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민수홍. 2005.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로서의 청소년비행과 학교에서의 징계경험. 청소년학연구 12(2):1-25.

민수홍. 2006.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3(6):27-47.

이성식. 2005. 사이버상의 청소년비행에 대한 일반이론의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227-249.

이성식. 2006a. 낮은 자기통제력과 성인의 약물남용, 그 매개 및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논의. 형사정책연구 17(4):333-362.

이성식. 2006b. 중학생 오프라인과 온라인 폭력 원인모색을 위한 주요 요인들의 적용. 청소년학연구 13(6):179-200.

Arneklev, B.J., Grasmick, H.G., Tittle, C.B., and Bursik, R.J. 1993. Low Self-Control and Imprudent Behavior.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9:225-47.

Baron, S.W. 2003. Self-Control, Social Consequences, and Criminal Behavior: Street Youth and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0:403-425.

Chapple, C.L. 2005. Self-Control, Peer Relations,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22:89-106.

Cohen, L. and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ies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588-608.

Evans, T.D., F.T. Cullen, V.S. Burton, R.G. Dunaway, and M.L. Benson. 1997. The Social Consequences of Self-Control: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5:475-501.

Gibbs, J.J. and D. Giever. 1995. Self-Control and Its Manifest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ustice Quarterly 12:231-5.

Gottfredson, M.R.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Grasmick, H.G., C.R. Tittle, R.J. Burski, and B.K. Arneklev. 1993. Tes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5-29.

Hay, C. and Forrest, W. 2008. Self-Control Theory and the Concept of Opportunity: The Case for a More Systematic Union. Criminology 46(4):1039-71.

LaGrange, T.C. and Silverman, R.A. 1999. Low Self-Control and Opportunit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as an Explanation for Gender Differences in Delinquency. Criminology 37:41-72.

Longshore, D. 1998. Self-Control and Criminal Opportunity: A Prospective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Social Problems 45: 102-113.

Longshore, D. and Turner, S. 1998. Self-Control and Criminal Opportunity: Cross-sectional Test of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5:281-98.

Longshore, D., E. Chang, S. Hsieh, and N. Messina. 2004. Self-Control and Social Bonds: A Combined Control Perspective on Deviance. Crime and Delinquency 50: 542-564.

Nagin, D.S. and R. Paternoster. 1993. Enduring Individual Differences and Rational Choice Theories of Crime. Law and Society Review 3:467-96.

Paternoster, R. and R. Brame. 1997. Multiple Routes to Delinquency? A Test of Developmental and General Theories of Crime. Criminology 35:49-84.

Piquero, A. and Pogarsky, G. 2002. Beyond Stafford and Warr's Reconceptualization of Deterr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9:153-186.

Pratt, T.C. and Cullen, F.T.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931-64.

Sampson, R.J. and J.H. Laub.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Simons, R.L., C. Johnson, R.D. Conger, and G. Elder. 1998. A Test of Latent Trait versus Life-Course Perspectives on the Atability of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r. Criminology 36:217-43.

Smith, T. R. 2004. Low Self-Control, Staged Opportunity, and Subsequent Fraudulent Behavio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1:542-63.

Vazsonyi, A.T., Pickering, L.E., Junger, M. and Hessig, D. 2001. An Empirical Test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A Four Nation Comparative Study of Self-Control and the Prediction of Devia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91-131.

Vazsonyi, A.T., Wittejind, J.E., Belliston, L.M. and Loh, T.D. 2004. Extend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to the East: Low Self-Control in Japanese Late Adolescents.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20:189-215.

Wood, P.B., B. Pfefferbaum, and B.J. Arneklev. 1993. Risk-Taking and Self-Control: Social Psychological Correlates of Delinquency. Journal of Crime and Justice 16:111-30.

Wright, B.R., A Capsi, and P.A. Silva. 1999. Low Self-Control, Social Bonds, and Crime: Social Causation, Social Selection, or Both? Criminology 37:479-514.

Wright, B.R., A. Capsi, T.E. Moffitt, and R. Paternoster. 2004. Does the Perceived Risk of Punishment Deter Criminally Prone Individuals? Rational Choice, Self-Control, and the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1:180-213.

The Effects of Low Self-Control and Opportunity on Offline and Online Delinquency : A Test of General Theory

Lee, Seong-Sik*

Gottfredson and Hirschi's a general theory of crime has been tested and supported with a considerable amount of interest among criminologists. According to this theory, low self-control can explain all kinds of crime. However, its applicability to online delinquency has been neglected in empirical studies. This study tests their theory to explain both offline and online delinquency. This study focuses on the issue whether both low self-control and opportunit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offline and online delinquency and also tests whether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low self-control and opportunity factors are significant. This study considers four opportunity factors(the perceived benefit from delinquency, the perceived costs in relationship with others, the perceived certainty of punishment, and parental supervision) and examines their independent and interaction effects with low self-control. Using data from 715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Seoul, this study tests several hypotheses.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on both offline and online delinquency is significant and also some opportunity factor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delinquency. However, results reveal that the effect of low self-control is larger on online, but the effects of opportunity factors are larger on offline. It is found that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low self-control and opportunity factors are small.

❖ Key words : general theory, low self-control, opportunity factors, offline and online delinquency.

투고일 : 2010. 1 27/ 심사(수정)일 : 2010. 3. 3 / 게재확정일 : 2010. 3. 22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sociology, Soongsil University, Ph.D. in Sociology